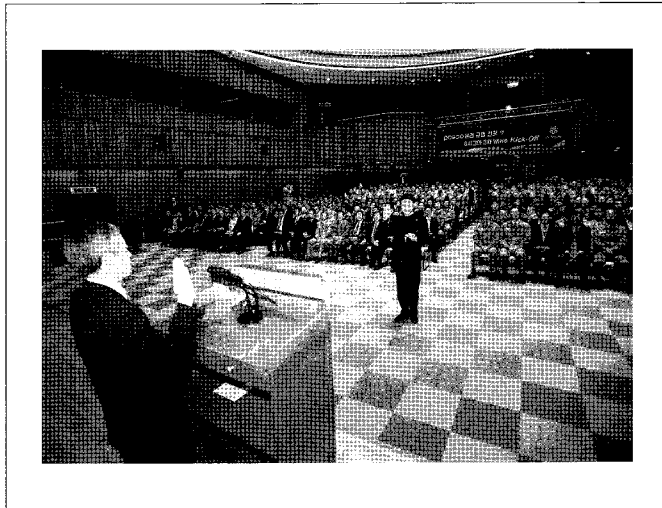


포스코, 5개 규범 7개 행동준칙 담은 윤리규범 선포

- 기업윤리도 글로벌 수준으로 -

포스코는 2일 본사 대회의장에서 윤리규범 선포식을 갖고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포스코가 이번에 제정, 선포한 윤리규범은 5개 규범과 7개 행동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사의 기본책무, 고객 및 거래처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된 본문은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윤리적 판단기준과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또 고객과의 거래, 이해관계 상충 등 7개 항목으로 구성된 행동준칙은 윤리규범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 행동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날 선포식에서 이구택 회장은 채상준 노경협의회 근로자위원 대표와 함께 직접 윤리규범 실천 서약서에 서명을 하고 윤리규범 준수 의지를 다졌다. 이 자리에서 이구택 회장은 선포사를 통해 「포스코가 PI를 통한 디지털경영 구축과 제도 개혁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업으로 자리 잡았지만 진정한 글로벌 초우량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밝히고, 「기업의 윤리성 확립으로 우리 스스로의 사고와 행동가치를 국제적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구택 회장은 이번에 제정해 선포한 윤리규범을 전 임직원이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실천해 나가겠

다는 의지와 노력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포스코는 이번 윤리규범 제정을 위해 2001년 10월 한국산업경제개발원에 '윤리경영 실천 프로그램 구축' 연구용역을 의뢰해 새로운 윤리규범 모델을 개발했고, 계층별·지역별 직원토론회를 거치며 직원들의 심층적인 의견을 수렴했다. 이와 병행해 OECD, ILO, TI 등 국제기구의 기업윤리 가이드 라인과 GE, IBM, 모토롤라 등 윤리경영 선진기업의 실천 사례를 폭 넓게 조사, 이를 토대로 윤리규범을 마련했다.

한편 포스코는 이번 윤리규범 선포가 선언에만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실천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사내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윤리 수준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평가모델을 개발, 운용할 예정이다. 더불어 거래처와 주고받는 계약 약관에 '포스코의 윤리규범을 준수한다'는 조항을 명시, 윤리경영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탈세, 회계부정, 환경오염 등의 위법행위 사실이 있는 기업과는 거래하지 않을 예정이다.

또 모든 임직원에게 신분증 뒷면에 5개 항목의 기업윤리 자기 진단표를 부착토록 해 수시로 기업윤리 의식을 자가진단 할 수 있도록 했다.